

무주군, 글로벌 관광지로 도약

베트남 엔바이성 응이아로 시사와 관광정책·관광자원 등 공유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맞아 무주군이 베트남 엔바이성과 관광정책 교류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엔바이성 응이아로 시사의 인민위원회 도벤 박(DO VIET BACH) 위원장 등 공직자 13명이 무주를 방문했으며 서재영 무주군 부군수를 비롯한 관광 분야 담당 공무원들이 만나 두 지역 관광정책 및 사례들을 공유했다.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맞아 무주군이 베트남 엔바이성과 관광정책 교류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 일행은 무주가 태권도원을 중심으로 한 ‘세계태권도 성지’라는 데 주목하며 무주반딧불축제와 비롯한 반디랜드, 머루와인동굴 등 무주군의 다양한 관광자원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 향후 관광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기관 간 협력관계를 이어가기로 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벤박(DO VIET BACH) 위원장은 “베트남에서 무주 사과가 굉장히 유명한데 직접 와보니 깨끗한 자연환경이 그 맛과 품질의 원천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태권도와 반딧불이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는 무주에 한

수 배워 엔바이성 관광 발전을 피하고 싶다”고 밝혔다. 베트남 서북부에 위치한 엔바이성(면적 6,808km² / 인구 72만여 명)은 험준한 산과 계곡, 푸른 논밭이 펼쳐진 산간지방으로, 무주와 비슷한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무주군 서재영 부군수는 “이번 방문은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태권도, 반딧불이 등 ‘무주다움’을 기반으로 한 무주군의 관광정책이 베트남 현지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는 방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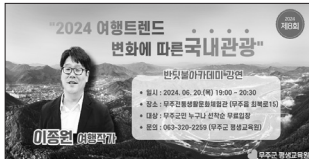
기도하다”며 “엔바이성 응이아로와의 발전적 관계 이어 나가면서 대한민국 10대 관광 매력 도시를 넘은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가능성도 펼쳐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코로나 종식 이후 관광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과의 관광 교류에 집중해 지속적으로 접촉해 왔으며 이번 엔바이성 응이아로와의 관광정책 교류 또한 결실로 보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여행 트렌드 변화 따른 국내관광’

무주군, 20일 이종원 여행작가 초청 반딧불이카데미 강연

무주군은 오는 20일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2024 여행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관광’을 주제로 한 반딧불이카데미 강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반딧불이카데미는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관련 내용들을 공유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간접 경험의 계기와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부터 이국종 의학박사,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

증권 이사,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 등 초청 강연을 진행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맞아 이종원 여행 작가(상상콘텐츠 연구소 소장, 저서_한국의 숨어있는 풍경 등)를 강사로 초빙해 ‘여행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여행 작가가 알려주는 추천 여행지 등도 ‘꿀팁’이 될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7월 25일에는 방송인 정은표의 “자녀 교육 비법, IQ보다 영재력을 키우세요”, 10월 24일에는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의 “노리게 나이 드는 습관 또래보다 10년 젊게 사는 최고의 습관”, 12월 5일에는 안인모 피아니스트와 함께하는 렉처콘서트 “클래식이 알고 싶다”가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누리파크’ 발물놀이장 7월 5일 개장

장수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사랑받고 있는 ‘장수누리파크’ 발물놀이장이 내달 5일 개장한다. 2023년 개장 이후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장수누리파크 발물놀이장은 다양한 놀이시설과 편의시설로 인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발물놀이장은 오는 7월 5일부터 9월 1일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이 정규 휴무일이다. 기상악화 시 안전사고 방

지를 위해 운영이 중단된다. 매일 총 3회 회차별(△1회차 10:00~11:40 △2회차 13:00~14:40 △3회차 15:00~16:40)로 운영되며, 회차별 이용 인원은 150명으로 제한된다. 군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회차별로 관내 50명, 관외 100명으로 구분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요금은 무료며, 이용 연령은 12세 이하 어린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단, 올해부터 발물놀이장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용일 기준 7일 전부터 장수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최훈성 군수는 “올 여름 무더위를 피해 많은 이용객들이 장수누리파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설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향후 현장에도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 여름관광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조현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태권도원 활성화 방안’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태권도원 활성화 방안 특별강연

태권도진흥재단,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초청 진행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18일, 조현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초청해 ‘태권도진흥재단과 태권도원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가졌다.

태권도원 운영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강연에는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태권도진흥재단과 태권도원운영관리(주)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조현재 이사장은 강연에 앞서 태권도원 전장에서 231만 4천㎡(70만 평)에 달하는 친환경적인 태권도원 전경을 둘러본 소감을 전하면서 스포츠와 무에서 태권도를 활용한 독창적 콘텐츠 개발·운영, 지역과 연계한 스포츠 관광, 태권도 관련 상품 개발을 통한 산업화, 유관기관 연계 및 뉴미디어 홍보 등을 태권도원 활성화에 있어 도전 과제로 제안했다.

또한, 정부 정책인 외래 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위해 태권도진흥재단이 추진 중인 외국인 태권도 관광 유치 노력 등에 대해 말하며 세계 태권도 성지이자 한국 관광 100선에 빛나는 태권도원이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과 IOC 등과의 협력 파트너십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태권도진흥재단과 태권도원이 현재보다 더 큰 발전을 이루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문제의식과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리더부터 모두가 CHANGE, CHALLENGE, CUSTOMER 등 ‘3C 혁신 마인드’를 갖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과감한 도전과 미래지향적 혁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고객 중심적 업무 방식을 지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태권도 미래는 태권도진흥재단 임직원의 몫’임을 당부하면서 이날 강연을 마쳤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체육, 관광 등 오랜 공직 경험과 지식을 가진 조현재 이사장님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타를 얻은 훌륭한 강연이었다”며 “변화와 혁신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무한한 애정으로 재단과 태권도원 발전에 이사장님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함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2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진안군은 18일 군청 강당에서 2024년 2분기 통합방위협의회의(의장 전춘성 진안군수)를 개최했다. ‘통합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지역 내 위기 상황 및 국지도발 발생을 가정해 민·관·군·경·소방의 위기관리와 통합방위사태 선포 절차 연습을 통해 유사 시 지역 안전을 조기에 회복하고자 분기마다 개최되고 있다. 2분기 협의회는 2024년 진안군 통합방위추진계획 보고와 7733부대 1대대 정작과장의 전반기 통합방위 노력 보고 후 위원 간 통합 방위 발전 방향 토의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토의 시간에는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및 GPS 교란 등 남북 긴장 관계가 고조된 상황에 참석자 모두 통합방위 위원들이 우려를 표하며 항상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유지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전춘성 의장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고 계속되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핵 위협 등으로 한반도 안보 정세가 불안하다”며 “각 기관 및 단체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안보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부안 지진 발생 따른 시설물 현장점검

장수군은 오는 20일까지 부안군 지진 발생에 따른 시설물 현장점검에 신속하게 나선다. 이번 점검은 지난 연약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 시설물 및 저수지 등 관련 시설물을 확인하기 마련됐다.

군은 점검을 위해 7개 읍·면은 물론, 5개 팀의 10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했다.

주요 점검 시설로는 저수지 19개소와, 위임국도등 도로 38개 구간, 터널 3개소 및 도로사면 인반부 등이다. 점검 결과 피해 등급 지역이 발생했을 경우 군은 사전보고를 통해 보수·보강에 나설 예정이다.

또 향후 군은 다가오는 우기철을 대비해 도로와 각종 배수시설을 정비하고, 기상특보와 관련해 철저한 비상근무를 통해 자연 재난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방향을 건설교통과장은 “진앙 지와는 거리가 있지만 장수에서도 지진이 느껴진 만큼 관내 각종 시설물 이상 여부를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며, “이번 여름철 폭우의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되는 만큼 사전적인 시설물 점검으로 대규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국가유산 재난대응 합동소방훈련 실시

진안군은 국가 유산 화재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지난 17일 진안 수선부에서 전북동부문화유산분센터, 진안소방서 마령119안전센터, 산불진화대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군은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초동대응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주기적으로 국가 유산 소유자 및 관리자와 함께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해 최초 발견자의 119신고, 소화기 초기 진화 훈련, 환자 이송 및 문화유산 반출 훈련, 소방차 출동 및 화재진압 절차 등을 진행했다. 특히 국가 유산 관리자가 훈련에 직접 참여해 실질적인 화재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켰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